



인생 하프타임

## 걷다 보니 길의 끝, 다시 보니 길의 시작

박창규 前 소장

그간 연구소를 퇴직한 이후 제 2의 삶을 살고 있는 소원들을 만나며 다정한 인사, 따뜻한 격려, 힘이 되는 메시지를 담은 <무내미>. 이번 호에서는 특별히 연구소 19대 소장인 박창규 前 소장을 만나 이야기 나눴다. 올해 8월이면 창설 48주년을 맞게 되는 우리 연구소, 그와의 얘기를 통해 연구소 NEW 50을 준비 하는 우리들의 바람직한 자세를 되새겨본다.

글 편집실 사진 박경태

### '자존', 최고로 향하는 지름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라 정말 반갑습니다. 요즘 ADD의 중요성이 많은 분야,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무내미>가 우리 연구소 최고의 서포터즈라 생각해요, 우리 소원들뿐만 아니라 외부에 계신 독자 분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이잖아요. 때문에 이렇게 <무내미>에 출연하게 되어 기쁩니다."

박창규 前 소장은 환한 미소로 취재팀을 맞았다. 연구소를 떠난 뒤 마음의 여유는 생겼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손에 꼽는 연구기관의 소장, 원장을 지낸 그답게 맡은 일이 워낙 많아 몸은 아주 바빠 지냈단다.

2008년 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한 그가 재임 기간 중 가장 마음 쓴 부분은 바로 '연구소 자존심' 문제였다. 우리 소원들이라면 어디서든 최고의 대우를 받을 만한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라 자부한 그는 법적으로 보장된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소원 복지, 명품 무기 선정, 우수 연구실 선정, 기술료 지원 등



01 두런두런 걸으며 연구소를 추억하는 박창규 前 소장 02 2006년 미시간대 동창회장상 시상식, 1990년대 원자력연구소 실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동료 결혼식... 언제나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 03 그는 일하는 것을 진정으로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평생직장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이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는 한  
평생직업은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을 통해 연구소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다. 그중 소원들이 과학 기술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업적은 지금까지 많은 이들에게 화자되고 있다. 그때만 해도 군인 공무원, 다른 출연연과 비교했을 때 복지 부분에 있어 일정 부분 뒤쳐져있던 우리 연구소는 이를 계기로 연금을 보장받고 연구 수당이나 건강보험 기타 체육시설을 향유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혜택은 국방과학기술 능력 향상과 기술 이전 능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격려이기도 했다. 이를 통해 소원들이 '자존'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연구소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에 힘써주길 바랐던 것이다. 최고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준다면 어디서든 인정받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 그가 세상을 보는 방법

우리 연구소 이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을 지냈을 만큼 국내에서 손꼽히는 원자력 분야 전문가인 박창규 前 소장. 얼마 전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초빙전문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또한 2016년 10월에 개최된 PSAM13(한국원자력 국제 학술대회) 대회장으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PSA(화학론적 안전성 평가)아시아학회 명예위원장직을 지냄과 동시에 포항공대에서 원자력 관련 강의를 맡고 있다. 한 분야를 그야말로 꿰뚫고 있어야 가능한 개론 수업부터 PSA에 관한 수업까지 진행 중이다. "연구소 입소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많아 연구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들려주곤 해요.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보일수록 힘이 나서 강의하죠. 가끔 원자폭탄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고요.(웃음)" 학생들에게 공학자로서의 자세, 기술자로서의 자세를 강조한다는 그, 주로 어떤 말로 그 뜻을 전하느냐는 질문에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말을 얹으면 얹었지,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는 게 제 철칙이에요."란다.

최근에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메커니즘(mechanism)을 활용할 기회가 없는 것이 아쉬워 2017년 3월 PSA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 그와 함께 사업을 꾸려나갈 연구협동조합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우리 연구소 출신 연구원 위주로 구성돼 있다. 그곳에서 Spin on · off 개념을 도입해 과제를 개발하고, SSIC(Safety & Security International Coop)를 통해 원자력 안전 및 신뢰도에 대한 연구관리뿐만 아니라 국방과학 분야에 응용해 두 분야 상호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새로운 놀이터가 생긴 셈이죠. 퇴직 후에도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아니겠어요? 언제까지나 심 없이 살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일은 언제나 즐거운 거니까!" 한때 건강 악화로 인해 큰 고비를 겪기도 했지만 일에 대해 그가 갖고 있는 소신과 배짱, 열정은 그 무엇도 가로막을 수 없었다. 여유롭게 웃으며 곧 시작될 사업에 대한 큰 기대를 보여주는 박창규 前 소장.

오는 5월에는 하나뿐인 자녀가 평생의 배필을 맞이한다. 그 시기에 맞춰 지난 몇 년간 <대전일보> 등에 기고한 원자력·국방 분야 칼럼인 '박창규의 세상 보기'를 묶은 책 출간을 앞두고 있다. 현재 최종 교정 단계로, 제목만 고민하면 된단다.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해온 연구개발의 자취가 담긴 무엇보다 뜻 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 평생직장은 없지만, 평생직업은 있습니다

박창규 前 소장은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국가안보를 다른 곳의 이야기처럼 여기는 경향에 대해 안타깝다 말한다. 그럴수록 연구소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빠른 대응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곳곳이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모두가 제도와 규제를 탓하기보다는 힘을 내서 좀 더 걸어 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해온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군에서 요구하는 연구개발을 넘어 저마다 원하는 연구개발까지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은 나무 조각을 이어 붙여 물통을 만들었습니다. 물통에 담길 물의 양은 나무 조각 중 가장 짧은 것으로 결정 되겠죠. 물통에 더 많은 물을 담기 위해서는 튼튼하고 긴 나무가 필요하고요. 이때 물을 국가안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국가안보가 새어 나가지 않으려면 튼튼하고 긴 나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최고의 물통을 만들어 주세요. 나아가 여러분이 국가와 국민의 물통이 되어 주는 겁니다. 사실, 평생직장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이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는 한 평생직업은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소원 모두에게 국방과학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박창규 前 소장. 그는 개개인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을 이끈다고 말한다.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는다면 어떤 분야건 더 많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 욕심 참 많은 그의 모습을 보니 어쩐지 기대고 싶어진다.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우리들이 평생 해 나아가야 할 직업은 무엇일까 생각해본다. 그의 말에 기대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나의 평생직업이어도 좋을까, 라고, 무너비

